



『삼국유사』 感通의 「彗星歌」 創作 背景

Comet Song" a Buddhist Priest Sang for Heaven

**저자
(Authors)** 서영교
Seo, Young-kyo

**출처
(Source)**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2011.6, 145-171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08864>

APA Style 서영교 (2011). 『삼국유사』 感通의 「彗星歌」 創作 背景.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145-17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5 10:0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感通의 「彗星歌」 創作 背景*

서 영 교**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607년 前後의 危機 |
| II. 진평왕대 倭의 위협 | V. 맺 음 말 |
| III. 「彗星歌」 創作年代 | |

[한글요약] 고구려 승려 혜자는 595년부터 615년까지 20년간 왜에 체재하면서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있었다. 4차례에 걸친 수의 고구려 침략, 혜자의 일본 방문과 고구려 환국 모두 영양왕시대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왜에 자주 사신을 파견했으며, 적극적으로 승려와 기술자를 보내는 등 경제적·문화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고구려의 외교는 효과를 발휘했다. 왜는 591년에 2만 5천 명의 군대를 큐슈(九州)에 주둔시켰다. 이후 근 4년 동안 왜군은 그곳에 머물렀던 것 같다. 이는 고구려가 수의 침공에 대비하여 전부터 사이가 나쁜 신라를 견제 하려는 의도였다. 왜의 군사행동과 시위는 신라의 병력을 남쪽에 묶어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확실하다.

600년에 왜군이 신라를 공격했다. 왜가 간헐적으로 신라를 공격하는 사

* 이 글은 다음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서영교, 「용천사의 혜성이 창작시기와 그 배경」 『民族文化』 27, 민족문화추진회, 2004.

** 중원대학교 박물관장

대표논저: 2002, 「羅唐戰爭의 개시와 그 배경」 『歷史學報』 173;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2002, 「張保臯의 騎兵과 서남해안 牧場」 『震檀學報』 94; 2002, 「羅唐戰爭기 唐兵法의 導入과 그 意義」 『韓國史研究』 116; 2004, 「고구려 기병과 鎧子」 『歷史學報』 181; 2006, 『나당전쟁사 연구 -약자가 선택한 전쟁』, 아세아문화사.

건은 당시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이해 왜에서는 다시 신라를 공격하는 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602년에는 신라정토계획이 시행 도중에 중단되었다. 하지만 다음해에 그것은 다시 시도된다. 이것도 중단된다. 하지만 591년부터 603년까지 근 12년간 왜국은 신라를 위협했다.

607년 100일 동안 헬리혜성이 지구에서 관측되었다. 그해 헬리혜성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만큼 규모가 컸고 3개월 10일 동안 하늘에 떠있었다. 신라에서 왜에 대한 긴장이 존재하는 시기였다. 607년의 헬리혜성은 동방에서 처음 출현했다.

『삼국유사』 감동 혜성이 진평왕대 조에 혜성이 동쪽의 별인 ‘心大星’을 범한 기록과 대체로 일치한다. 무엇보다 『彗星歌』 첫 머리에 나오는 ‘舊理’가 이전의 시제를 의미한다고 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전(600년)에 왜군이 쳐들어 왔는데 (607년)에혜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혜성의 출현을 왜군의 재침의 전조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응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불러 혜성을 사라지게 하니 왜군의 침범의 우려도 사라졌다.

[영문요약] For centuries the sight of a comet, even the “comet”, struck fear to the hearts of people. One particular comet appeared in the sky around the world in the year 607 A.D. For the Sillas, a comet was not a visitor from space.

With them came a succession of comet-unannounced objects of fear and superstition. No matter when a comet appeared, there was always a war, epidemic, famine, or natural disaster in the past, in progress, or soon to come for which the comet could be blamed.

Halley's comet was seen around the world in 607. As usual, it was interpreted as a bad omen. During the previous century, the Wea(倭) from the Japan had pushed westward until they dominated southern Korea(任那).

The Wea was more aggressive, connecting Koguryo. In 595~615 A.D. Koguryo paid heavy tribute to Japan. The Koguryo King persuaded the Wea leader Suigo Tenno(推古天皇) to take field against Silla.

[주제어] 彗星歌(Comet Song), 헬리 혜성(Halley's comet), 日本兵(The Japanese Army), 高句麗僧 慧慈(Hyeja, a Buddhist Priest of the Koguryo), 眞平王(The Silla King Jinpyeong)

I. 머리말

『삼국유사』 권5 感通 ‘融天師彗星歌 眞平王代’조에 용천사가 「彗星歌」를 불러 彗星을 사라지게 했고 ‘일본병’도 물러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天體의 異變, 일본병의 침공, 용천사의 「彗星歌」의 창작 그리고 일본병의 還國 이야기 구조이다. 핵심은 ‘혜성’과 ‘일본병’이다.¹⁾

「彗星歌」의 창작시기를 밝혀내려는 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²⁾ 하나는 혜성의 출현 방향에 대한 고찰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병 환국’ 문제에 대한 검토이다. 조동일은 혜성의 출현 방향에 주목했다(‘有彗星犯心大星’). 혜성이 출현한 心星은 동쪽에 있는 별자리이며, 진평왕대에 해당되는 백제의 위덕왕 41년(594) 11월 角亢(동쪽)에 출현했다는 星孛와 방향이 일치한다고 보았다. 그는 「彗星歌」 창작된 연대를 594년으로 주장했다.³⁾ 혜성이 지구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천체라는 점에 주목한 조동일의 연구는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하지만 조동일은 왜병 출몰에 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천인상관설 사상의 관점에 주목하여 혜성 출현과 결부된 역사적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岡山善一郎은 「彗星歌」에 보이는

-
- 1) 혜성의 의미와 왜병 환국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는 크게 2개로 나뉜다. 「彗星歌」를 단을 열고 作啓하여 부른 呪詞로 보는 견해가 있고(양주동·김동욱·최성호·김열규·이재선), 화랑의 공덕을 칭송한 노래로 보는 경우도 있다(김선기·최철·김승찬). 윤영욱은 실측적 기원가로, 박노준은 呪歌, 治理歌이면서 화랑 찬모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2) 魚允迪, 『東史年表』(1959年版).
 - 3) 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한국시기문학연구』(정병욱환갑), 신구문화사, 1982.

‘일본병 환국’을 반영하는 사실을 『일본서기』(推古期)에서 나름대로 찾아낸 후, 「彗星歌」 창작시기를 602년 2월 전후로 결론 내렸다.⁴⁾

그 해 4월 병력 2만 5천을 이끌고 九州에 도착한 來目皇子가 6월에 병에 걸리자 신라정벌이 연기되었다.⁵⁾ 岡山씨에 따르면, 602년 왜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킨 사실이 신라에 알려졌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혜성이 출현하여 전쟁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으며, 신라에서 혜성의 소멸을 기원하는 의식과 적을 항복시키려는 降伏呪術이 행해졌다고 한다. 그때 마침 敵將(來目皇子)의 죽음으로 침공이 갑자기 중지되자 신라 측에서는 「彗星歌」를 부른 의식이 효험과 靈力을 발휘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彗星歌」 배경의 기술에 왜병의 來侵에 대한 언급이 없이 歸還한 기록만 보이는 것은, 왜병의 신라침공이 돌연 중지된 사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했다.⁶⁾

岡山씨는 「彗星歌」에 보이는 ‘일본병 환국’을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보고, 『일본서기』에서 이와 부합되는 사실을 찾으려고 치밀하게 검토했다. 무엇보다 來目皇子의 죽음으로 인한 왜병의 신라침공 좌절과 신라의 정보 수집을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岡山씨는 ‘일본병 환국’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치밀하게 고증했다. 하지만 「彗星歌」의 창작 모티브인 혜성 출현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혜성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관측되는 천체이므로 혜성에 대한 기록은 국적과 시기를 불문하고 우리의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천문기록을 가지고 있다.⁷⁾

4) 岡山善一郎, 「郷歌 [彗星歌]と歴史記述」 『朝鮮學報』 187, 2003. 4, p. 100.

5)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0년조.

6) 岡山善一郎, 앞의 논문, pp. 98~99.

7) 조상호, 『혜성 관측가이드』, 가람기획, 1997, p. 57.

필자는 먼저 「彗星歌」 탄생의 선명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진평왕대의 국제적 상황에 대해 검토했다.⁸⁾ 다음으로 「彗星歌」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 고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신라인들이 처한 시대의 분위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II. 진평왕대 倭의 위협

진평왕은 숙부 진지왕이 폐위된 579년 7월에 왕위에 올라 632년 돌아갈 때까지 53년 동안 신라를 통치한 英主이다. 진평왕의 재위 기간 중 국제정세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변화의 연속이었다. 그가 재위한 기간은 수나라가 건국되어 중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와 전쟁 하던 중 멸망하고, 이어서 건국된 당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돌궐을 제압한 시기까지를 포함한다.

『삼국유사』 권5 감통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 조를 보자.

第5 居列郎·第6 實處郎(혹은 突處郎)·第7 寶同郎 등 3花郎의 무리가 楓岳(금강산)에 놀러가려고 하였을 때, 彗星이 心大星을 범했다. 郎徒들이 의아(疑訝)해 하여 여행을 중지하려고 하였다. 이때에 融天師가 향가를 지어 부르매 혜성이 없어지고 日本兵이 물러가서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대왕(진평왕)이 기뻐하여 郎徒들을 楓岳에 놀러 보냈다. 그 향가에 “이전 동쪽 바닷가에 건달바가 놀던 城을 살피다. 왜군도 왔다 봉화 사른 변새 있어라. 세 화랑 산 본다는 소식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빛을 발하는데 길쓸별 바라보고 혜성이라 아뢰 사람이 있다. 아아! 산 아래로 사라졌으니 이밖에 무슨 혜성 기운이 있겠는가.”⁹⁾

8) 岡山善一郎, 앞의 논문, pp. 98~100.

9) 향가는 신영명교수의 해석을 따랐다. 신영명, 「7세기 초 신라정치사와 「

3개의 화랑 무리가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나려 할 때 혜성이 나타났다. 낭도들이 일정을 취소하려고 하자 용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니 혜성이 없어지고 왜병들이 물러났다. 진평왕이 기뻐하여 낭도들에게 여행을 다시 허하였다. 왜병과 혜성은 짝을 이루고 있다. 혜성이 나타나니 왜병이 왔고, 혜성이 사라지자 동시에 왜병이 사라졌다. 확실히 「彗星歌」에는 왜에 대한 공포가 스며있다.

초기 신라 역사에는 ‘倭’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되어 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1대 신라왕인 혁거세 8년(기원전 50)부터 소지왕 22년(500)까지 총 59회의 왜 관련 기록이 보인다. 그 가운데 신라에 대한 왜의 침략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빙·구훈·인질·절교 등의 외교기록을 제외하면 36회가 그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왜가 내습한다는 거짓말 1회(지마 11년 ; 122) 왜의 내습에 대한 신라의 전쟁준비 2회(유례 4년 ; 287·소지 15년 ; 493), 신라의 선제공격계획기도 2회(유례 21년 ; 295·실성 7년 ; 408)를 포함한 것이다.

왜가 내습한 지점, 신라가 내습한 왜와 싸운 장소, 혹은 왜의 침구에 대비하여 성을 쌓은 곳으로 木出島(1회)·金城(4회)·沙道(1회)·沙道城(1회)·一禮部(1회)·長峯城(1회)·長峯鎮(1회)·風島(2회)·吐含山(1회)·獨山(3회)·斧峴(1회)·明活城(2회)·月城(1회)·活開城(1회)·歆良城(1회)·五道(1회)·臨海鎮·長嶺鎮(1회) 등이 보인다. 그야말로 초기 신라사는 왜와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바다를 건너온 왜인들은 주로 신라의 왕경 주변 지역을 위협했다.

초기 신라에 출몰한 왜병과 「彗星歌」에 나타난 ‘일본병’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진평왕대 왜병은 더 조직적이고 규모도 컸다. 그 시대적 상황도 완전히 달랐다. 진평왕대인 589년에 수가 남조의 陳을 멸하고 중국 통일을 달성했다. 수는 後漢末 이후 근 400년간 지

혜성가」 『우리文學研究』 24, 2007, pp. 25~26.

속된 분열을 종식시켰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중국의 분립 상태가 익숙했고, 통일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수의 통일 직후 신라는 수조정에 접근하여 남북에서 고구려를 협격하자고 제안했다. 수문제도 관심을 표명했다. 594년에 수문제는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진평왕을 ‘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했다.¹⁰⁾ 수는 고구려를 공략하기 위해 신라를 적극 이용하려 했다. 608년에 신라는 수에 군사를 청하는 글을 올려 수에게 고구려에 대한 협공을 자원하고 나왔으며,¹¹⁾ 611년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려 하자 진평왕도 참여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¹²⁾

고구려 수뇌부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왜국에 접근했다. 사카모도 역시다내(坂元義種)는 595년 고구려僧 慧慈의 왜국 파견이 嬰陽王의 뜻이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승려 혜자는 595년에서 615년까지 20년간 왜국에 머물면서 聖德太子의 스승으로 近侍했던 이름난 인물이다. 사카모도씨는 “네 차례에 걸친 수의 고구려 침략은 모두 영양왕시대의 일이었으며, 혜자의 來日과 귀국도 역시 영양왕대 일이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왜가 여섯 번에 걸쳐 遣隋使를 파견한 일도 모두 혜자가 그곳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다.¹³⁾

이 시기에 고구려 영양왕은 왜에 자주 사신을 파견했으며, 적극적으로 승려와 기술자를 보내는 등 경제·문화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10)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6년조.

11)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0년조.

12)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3년조.

13) 坂元義種, 「推古朝の外交-とくに隋との關係を中心に」 『歴史と人物』 100, 1979(李成市, 「高句麗와 日隋外交」 『이우성정년기념논총』, 1990, p. 138 재인용).

“12년 여름 4월 신유 초하루에 천황은 황태자·대신 및 諸王·諸臣에게 詔하여 함께 誓願을 발하고, 銅 및 繡의 丈六의 불상 각각 1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鞍作島에 명하여 불상을 만드는 工으로 하였다. 이때 고려국의 대홍왕(영양왕)이 일본국의 천황이 불상을 만든다는 말을 듣고 황금 300량을 보내왔다.”¹⁴⁾

“고려왕은 僧 담징과 법정을 보냈다. 담징은 오경을 해하였다. 또 채색이나 종이·墨을 만들고 또 깃돌을 만들었다. (수력을 이용한 臼(절구)를 만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¹⁵⁾

왜국의 왕이 장육상을 만든다고 하자 고구려 영양왕이 황금 300량을 보내왔고, 법륜사에 위대한 작품을 남긴 담징 등의 승려·기술자·화가 등이 왜에 파견되었다. 실로 왜에 대한 고구려의 원조는 대단했다. 이는 왜국이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켜 신라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력원이었다. 600년에 가서는 왜군은 신라의 5개 城을 직접 공격했다.

“8년 춘 2월에 신라와 任那와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천황은 임나를 구하려 생각하였다. 이 해 境部臣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穗積臣을 부장군으로 하여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임나를 도와서 신라를 공격하였다. 장군들은 직접 신라를 목표로 하고,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러 5城을 공략하였다. …(하략)…”¹⁶⁾

기사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신라에 대한 왜의 위협·침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듬해에 다시 신라침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행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9년(601) 11월 庚辰 조를 보면 “甲申에 신라를

14)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3년(605) 여름 4월조.

15)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8년(610) 봄 3월조.

16)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8년 봄 2월조.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다”라고 한다. 다음 기사를 보자.

“己酉 朔에 來目皇子를 對신라 정벌 장군으로 하고 神部・國造・伴造 등과 아울러 군병 2만 5천명을 주었다. 여름 4월에 戊申 朔에 장군 萊木황자는 筑紫에 도착하고 나아가 嶋郡(후쿠오카의 縣系島郡)에 주둔하여 선박을 모아 군량을 운반하였다. 6월 丁未 朔 己酉에 …(중략)… 이때 萊木황자는 병에 걸려 신라정벌을 다하지 못하였다.”¹⁷⁾

602년의 신라정토 계획은 총사령관 來目皇子의 문제로 연기되었다. 그 이듬해 그것은 다시 시도된다.

“朔에 萊木황자의 兄 當摩皇子를 신라정토의 장군으로 하였다. 가을 7월에 辛丑 朔 癸卯(3일)에 당마황자는 배로 난파를 뒀다. 丙午(6일)에 당마황자가 播磨에 이르렀을 때, 따라오던 처 舍人姬王이 赤石에서 죽었다. 그래서 척석의 檜笠岡 위에 매장하고 당마황자는 되돌아와서 마침내 정토하지 않았다.”¹⁸⁾

결과적으로 602년과 603년에 왜의 신라침공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는 왜의 정토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왜를 왕래하던 신라사신이나 신라가 풀어놓은 밀정들을 통해 속속 보고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⁹⁾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9년(601) 가을 9월조에 “辛巳 朔 戊子에 신라의 간첩 迦摩多加 대마도(對馬)에 도착하였으므로 잡아서 바쳤다. 그래서 가마다를 上野에 유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왜는 이보다 앞서 596년(추고4)에 2만 5천명의 군대를 九州 筑紫

17)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0년 (602) 봄 2월조

18)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11년(603) 여름 4월조.

19) 岡山善一郎, 앞의 논문, pp. 98~99 참조.

에 파견했다.²⁰⁾ 왜의 대규모 병력이 구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신라 병력 중 상당수는 남쪽에 묶여 있어야 했고, 그래서 신라는 그 군대를 고구려 국경으로 돌리지 못한다.

6세기 말과 7세기 초반 사이에 신라는 왜국의 침공을 우려하고 있었다. 우려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양면공격을 받고 있는데 있었다. 이시기에 출현한 혜성은 신라인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彗星歌』의 창작시기는 왜가 2만 5천 병력을 구주의 筑紫에 파견한 596년(추고4)과 신라정토장군 당마황자가 구주에서 사망한 603년 이후였을 가능성이 높다. “혜성가 첫머리에 나오는 ‘舊理’, ‘오래전에서 방금전’까지를 포괄하는 과거시제이다.”라고 하는 최근 연구 성과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²¹⁾

Ⅲ. 「혜성가」 創作年代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僧 혜자는 595년 고구려 영양왕의 뜻을 받들어 왜에 파견되었다. 네 차례에 걸쳐 수가 고구려를 침략한 사건은 혜자가 왜에 머물렀던 20년 사이에 일어났다. 혜자의 체제시기는 『彗星歌』 창작시기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彗星歌』와 중국의 천문기사를 비교 검토하여 『彗星歌』의 구체적인 창작시기를 밝혀보자. 천문현상은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목격된다.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진평왕대의 혜성기사는 다음과 같다.

20) 『일본서기』 권22, 추고천황 3년(595) 가을 7월조 “장군들(崇峻 4년(591)에 파견된 紀男麻呂)이 츠쿠시(筑紫)에서 도착했다”.

21) 황병익, 「『彗星歌』의 爭點과 意味 考察」 『韓國詩歌研究』 17, 2005.

- 1)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위덕왕 26년(579)
겨울 10월 長星이 竟天했으나, 20일 후에 없어졌다.
- 2) 『陳書』 卷5, 本紀5 宣帝 太建 13년(581)
12월 辛巳에, 彗星見.
- 3) 『수서』 권2, 고조 개황8년(588)
冬十月 甲子, 有星孛於牽牛.²²⁾
- 4) 『수서』 권2, 고조 개황14년(594)
十一月 癸未, 有星孛於角亢.
- 5)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위덕왕 41년(594)
겨울 11월 癸未에 星孛于角亢.
- 6) 『수서』 권3, 양제 대업 3년(607)
봄 정월 丙子에 長星이 竟天하여, 東壁에 보였다가 二旬 후에 止했다.

2월 己醜, 彗星이 奎(에 나타나), 文昌을 (掃)쓸고, 大陵을 (歷)지나 太微으로 들어가, 帝坐를 掃(쓸었다)했다. 전후 백여 일 후에 止했다.

22) 『수서』 권2, 제기2 고조 개황8년(588) “冬十月己亥, 太白出西方. 己未, 置淮南行臺省於壽春, 以晉王廣爲書令. 辛酉, 陳遣兼散騎常侍王琬、兼通直散騎常侍許善心來聘, 拘留不遣. 甲子, 將伐陳, 有事於太廟. 命晉王廣、秦王俊、清河公楊素並爲行軍元帥, 以伐陳. 於是晉王廣出六合, 秦王俊出襄陽, 清河公楊素出信州, 荊州刺史劉仁恩出江陵, 宜陽公王世積出蘄春, 新義公韓擒虎出廬江, 襄邑公賀若弼出吳州, 落叢公燕榮出東海, 合總管九十, 兵五十一萬八千, 皆受晉王節度. 東接滄海, 西拒巴、蜀, 旌旗舟楫, 橫數千裏. 曲赦陳國. 有星孛於牽牛.” 牛는 북쪽에서 성패가 보였음을 의미한다.

5월 癸酉, 有星孛於文昌上將, 星皆動搖.

7) 『수서』 권3, 양제 대업 4년(608)

9월 戊寅, 彗星이 五車에 나타나서 文昌을 掃하고(쓸고), 房에 이른 후에 滅했다.

8) 『수서』 권3, 양제 대업 13년(617)

(九月) 彗星이 營室에 보였다.²³⁾

9) 『신당서』 志22 天文2 孛彗조 武德 九年(626)

二月 壬午, 有星孛於胃, 昴間²⁴⁾; 丁亥, 孛於卷舌. 孛與彗皆非常惡氣所生, 而災甚於彗.

필자는 진평왕 재위기간 중의 혜성과 관련해서 위와 같은 기록을 찾아냈다. 9건의 기록 중 4)·5)는 594년 10월에 나타난 성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서』와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기록이 같다. 그러므로 진평왕대에 나타난 혜성과 장성, 성패는 모두 8개에 달한다.

혜자가 왜의 실권자 성덕태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시기는 595년부터 615년 사이이다. 이 20년 동안의 혜성기사는 엄격하게 말해 6)과 7)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근소하게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594년의 혜성 출현 기사도 일단 고려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볼 때 617년의 기록도 고려해야겠지만 617년에 가서 수나라는 내란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고 있었고, 고구려는 왜에 대해 외교적 공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수는 재기 불능상태여서 고구려와 전쟁을 할 수 없었고, 혜자가 이보다 2년 앞서 615년에 고구려로 돌아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617년 기사는 제외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검토대상은 4), 5), 6), 7)로 좁

23) 室은 북방을 가리킨다.

24) 胃昴는 서방이다.

혀지고 4)와 5)는 같은 기록이라 실질적으로 3개가 된다.

「彗星歌」의 창작연대와 관련하여 천문현상에 주목한 최초의 학자는 조동일이다. 물론 그가 이것을 주목한 까닭은 천문현상이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이다.²⁵⁾ 사서에 기록된 정치·사회적인 사건들은 윤색 또는 왜곡될 수 있지만 천문기록은 그럴 수 없다. 설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천문기록은 수정될 수 있다.

조동일은 「彗星歌」의 창작시기와 관련하여 594년에 출현한 5)의 혜성기사에 주목했다. 그것은 바로 4)의 기록, 『수서』 권2, 고조 개황 14년(594) 11월 계미조에 성패가 각항에 나타난 것을 말한다. 조동일은 4)에서 보이는 혜성이 『삼국유사』의 「彗星歌」에 나오는 혜성과 방위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삼국유사』에서는 “犯心大星”이고 5)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于角亢”이며, 心大星은 心星이라고도 하며 이십팔수 중에서 동방에 있는 별이고, 각항 또한 이십팔수 중에서 동방에 있는 별 각과 항을 말한다고 한다. 혜성이 동방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각기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²⁶⁾

조동일은 『삼국사기』 백제본기(5)의 날짜를 참고하여 『삼국유사』의 「彗星歌」가 진평왕 16년(594) 11월에 지어진 것으로 확신했다.²⁷⁾ 하지만 조동일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적다. 혜성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혜성의 규모가 크고 하늘에 오래 떠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

4)·5)에서 굳이 혜성이 아니라 성패라 표현한 것도 이러한 맥락

25) 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韓國詩歌文學研究』(정병욱환갑) 신구, 1983, pp. 59~66.

26) 조동일, 앞의 논문, p. 63.

27) 조동일,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새문사, 1983, p. 174.

에서 이해된다. 위의 『수서』의 기록(有星孛於角亢)을 고려할 때 이성패는 동방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게 분명하며, 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9)의 기록에서도 “패와 혜 모두(皆) 비상한 惡氣를 所生하지만, 재앙은 혜가 심하다(孛與慧皆非常惡氣所生, 而災甚於慧)”고 했다. 이는 아무래도 관측되는 천체의 규모와 관련된 표현이라 생각된다.

594년 당시만 해도 수가 고구려에 본격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신라도 고구려와 백제의 강력한 양면공격을 받지 않았다. 고구려의 對외 외교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전략적 차원에서 본격 가동된 시기는 아니었다. 왜는 승려 혜자가 파견된 이듬해인 596년(추고 4)에 가서야 2만 5천명의 군대를 구주의 筑紫에 파견했으며²⁸⁾ 수와 고구려의 본격적인 대립도 고구려가 598년 2월 遼西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6)과 7)의 기사로 좁혀지며, 「彗星歌」의 창작시기는 607년에서 608년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삼국유사』의 “범심대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6)의 기록 중 607년 1월에 ‘東壁’에 출현한 長星이다. 심성은 이십팔수 중 동쪽에 위치한 별이고 607년 1월의 장성도 동벽에 출현한 천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동일은 장성이 과연 혜성인가 의문을 가졌다. 나타나서 20일 만에 없어졌다는 것을 보면 별똥별은 아닐 터이나 혜성 출현을 기록할 때 쓴 일반적인 용어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⁹⁾ 그러

28) 596년(추고 4) 이전에도 왜가 筑紫에 병력을 배치했다. 『일본서기』 권21, 崇峻天皇 4년(591) 11월 己卯조를 보면 倭가 “2만 여 병력을 筑紫에 주둔시키고 吉士 金을 신라에 보내고, 또 길사 木蓮子を 任那에 보내어 임나의 일을 물었다”라고 한다.

29) 물론 이것은 조동일이 1)의 기록(『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위덕왕 26년(579) “겨울 10월 長星이 竟天했으나, 20일 후에 없어졌다”)을 염두에

나 장성은 혜(慧)에 속(屬)한다. 『신당서』 권32, 천문지를 보자.

“(大曆)七年(772 ; 혜공왕 8년) 十二月 丙寅, 有長星於參下. 其長巨天. 長星, 彗屬. 參, 唐星也.”

더구나 772년 12월에 나타난 이 장성은 일본에서 혜성으로 관측되었다.³⁰⁾

“宝龜三年(772) 十二月 己巳(廿三) 彗星見南方. 屈僧一百口. 設齋於楊梅宮(『續日本紀』 卷32).

위의 기록을 보면 『신당서』에 ‘장성’이라 기록된 것이 ‘혜성’으로 표현되었다. 772년 12월에 혜성이 남방에 나타나자 光仁天皇(770~781)은 “승려 1백명을 동원하여 楊梅宮에서 設齋”하게 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혜성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이다. 통치자란 백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혜성이 나타나자 융천사가 「彗星歌」를 지어 그것을 물리쳤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관련하여 중요한 암시를 준다. 진평왕도 신라 왕경의 어느 사찰(황룡사로 추정)이나 왕궁에서 융천사를 필두로 하는 상당수의 승려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設齋를 행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6)과 7)의 기록을 다시 보자.

6) 『수서』 권3, 양제 대업 3年(607)

봄 정월 丙子에 長星이 竟天하여, 東壁에 보였다가 二旬 후에 止했다.

두고 한 언급이다(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韓國詩歌文學研究』 (정병욱환갑) 신구, 1983, p. 62).

30) 『日本書紀』 卷二三, 舒明天皇六年六三四) 八月 “長星見南方. 時人曰彗星”.

2월 己醜, 慧星이 奎(에 나타나), 文昌을 (掃)쓸고, 大陵을 (歷)지나 太微으로 들어가, 帝坐를 掃(쓸었다)했다. 전후 백여 일 후에 止했다.

5월 癸酉, 有星孛於文昌上將, 星皆動搖.

7) 『수서』 권3, 양제 대업4년(608)

9월 戊寅, 彗星이 五車에 나타나서 文昌을 掃하고(쓸고), 房에 이른 후에 滅했다.

6)의 기록에서 607년 동벽에 나타난 장성은 「彗星歌」의 심성과 방향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그것은 20일(2旬)만에 사라졌으므로 대형급 혜성은 아니며, 장성이란 표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신라인들이 규모도 작고 수명도 길지 않은 천체를 보고 불안에 떨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7)의 608년 오차(五車 ; 북극성 서쪽)에 나타난 혜성도 마찬가지다. “문창을 쓸고(掃), 방성(房)에 이른 후에 사라졌다(滅)”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도 607년 정월의 혜성보다 수명이 길지 않았고, 규모도 크지 않았다.

6)의 607년 5월에 나타난 성패도 대형급 혜성으로는 볼 수 없다. 성패의 패는 꼬리가 사방으로 나누어 퍼지는 모양을 한 일종의 혜성이다(芒氣四出曰孛).³¹⁾ 그것은 하늘에서 ‘+’로 보이며, 그것이 회전을 하며 날아가면 ‘卍’로 보인다. 기원전 3~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마왕퇴 출토 비단에 그려진 혜성 중에 만자 형태가 보인다

31) 『수서』 권20, 천문 중 妖星조 “... 孛星, 彗之屬也. 偏指曰彗, 芒氣四出曰孛. 孛者, 孛然非常, 惡氣之所生也. 內不有大亂, 則外有大兵, 天下合謀, 暗蔽不明, 有所傷害. 晏子曰: “君若不改, 孛星將出, 彗星何懼乎?” 由是言之, 災甚於彗”.

다. 그것은 규모가 소형이며 먼 하늘에서 ‘+’로 보이다 이내 사라진 것이다.

6)의 607년 2월에 나타난 혜성은 규모와 수명에서 단연 돋보인다. “기축(己醜 ; 10일)에 혜성이 규에 나타나, 문창을 쓸고, 대릉을 지나 태미로 들어가, 제좌를 쓸었다. 전후 백여 일 후에 가서야 없어졌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혜성은 대형급이 분명하다. 그러나 규는 西方의 별(星) 이름이다. 607년 2월의 혜성은 서쪽에 나타난 혜성이며, 『삼국유사』 「彗星歌」의 心星(동쪽)과 완전 반대 방향이다.

이 점 조동일이 지적한 바 있다. “혜성이 출현한 방향이 「彗星歌」에서 말한 혜성의 경우와 다르다. 혜성이 처음에 ‘奎’에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별은 이십팔수의 하나로 서방에 있는 별이다. 다음에는 ‘文昌’을 쓸었다고 했는데, 이 별은 ‘북두칠성’ 중 첫째 별에 해당된다. 혜성이 서쪽에서 나타나서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大陵’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 별 자리는 서방에 있는 이십팔수의 하나인 ‘胃’의 북쪽에 있다. ‘五車’는 북극성 서쪽에 있는 별자리이며, 그 중 하나가 일등성 카펠라(Capella)이다. ‘北河’는 쌍둥이좌에 해당되는 별자리이며, 북극성 서쪽에 있다. 그 세 별자리를 거쳐서 다음에는 ‘大徵’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것도 서북쪽 별자리로서 사자좌 서쪽 별 열개이다. 끝으로 ‘帝坐’를 휩쓸었다 했는데, 이것 또한 서북쪽의 별자리다. 요컨대 607년의 혜성은 서쪽에서 처음 보여서 서북쪽으로 자리를 옮겨갔으니, 「彗星歌」에서의 혜성이 동쪽에서 출현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³²⁾

필자는 지금까지 국제적 힘의 구조 속에서 진평왕대 신라에 대한 왜군의 침공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彗星歌」의 창작시기를 좁혀왔

32) 조동일, 「「彗星歌」의 창작 연대」 『韓國詩歌文學研究』(정병욱환갑) 신구, 1983, p. 64.

다. 하지만 각 기록의 분석 결과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없게 된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필자가 완전히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혜성기록을 찾지 못했거나 필자의 시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까. 속단은 이르다. 우리는 여기서 태양과 혜성 그리고 지구의 상대적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의 607년 정월의 長星과 2월의 혜성은 하나의 혜성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607년의 헬리혜성이며, 근일점(近日點)을 통과한 날짜(Perihelion Date)가 2월 12일(양력 3월 15일)이었다.³³⁾ 607년에 출현한 헬리혜성은 장안(長安) 상공에 음력 1월 27일(正月 丙子)에 출현했고, 그 방향은 동방이었다. 이것은 사라졌다가 음력 2월 10일(己醜)에 서쪽에서 다시 나타나 문창을 쓸고 대릉을 지나 태미으로 들어가 제좌를 쓸었다. 전후 백여 일 후에 가서야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혜성은 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까.

여기서 헬리혜성, 지구, 태양 사이의 상대적 궤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발달하며 근일점에서 가장 커진다. 반대로 그것을 돌아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하지만 지구에서 볼 때는 약간 차이가 난다. 주요 원인은 지구·태양·혜성의 상대적 위치와 태양의 밝기 때문이다.

607년 음력 1월 27일에 동방에 최초로 나타난 혜성은 얼마 후 사라졌다. 그리고 음력 2월 10일에 서쪽에서 다시 나타났다. 이는 지구와 혜성 사이에 태양이 거의 직선으로 나란히 위치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며,³⁴⁾ 혜성이 접근해 오다가 사라진 것

33) Mark Littmann, Donald K. Yeomans, *COMET HALLEY-Once in a Lifetime*,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C. 1985, p. 143. 음력과 양력 날짜 환산은 韓甫植 編著, 『韓國年曆大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7, p. 607에 의거했다.

34) 헬리혜성의 궤도를 고려한다면 그것이 태양을 돌아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한번 정도는 지구와 태양을 나란히 서있게 되는데, 이때 지구에서

은 태양에 아주 가까워지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혜성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감히 태양에 비할 수 없다.³⁵⁾

하지만 실제로 혜성은 태양으로 접근하면서 계속 꼬리가 밝아지고 있었다. 역으로 태양과 멀어지면서, 일렬로 놓였던 세 천체의 상대적 위치가 굽어지면서 혜성은 다시 나타났고 100일 동안 그 꼬리를 보인 것이다. 「彗星歌」의 모티브가 된 혜성은 607년에 지구에 나타난 헬리혜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동일은 『삼국유사』 용천사의 「彗星歌」를 607년의 헬리혜성으로 보았다.³⁶⁾ 하지만 그것을 철회했다. “필자는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한때 607년의 혜성이 「彗星歌」에서 말한 혜성이라 착각해서, 이 말을 몇 사람에게 한 적도 있다. 『마당』에 연재중인 「다시 쓰는 한국문학사」 2회, 1981년 10월호 p. 219에서 ‘7세기 초 용천사의 「彗星歌」’라고 한 것도 그런 착각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이다. 한 동안 잘못 짚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 기회에 잘못이 다시 정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조동일은 607년 2월의 기록³⁷⁾을 고려했겠지만, 長星은 혜성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조동일은 혜성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상대적 위치에 대해서도

관측되지 않는다. 처음 출현 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 시점에서이다. 물론 태양을 중심으로 볼 때 지구의 궤도와 헬리혜성의 궤도는 18도정도 차이가 있다(Mark Littmann, Donald K. Yeomans, *COMET HALLEY-Once in a Lifetime*, p. 87). 그래서 3개의 천체가 완전히 일직선상에 놓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35) 안드레아스 포 레비, 『혜성의 신비』(박병덕·배정희 옮김), 다섯수레, 1997 참조.

36) 조동일, 앞의 논문.

37) 『수서』 권3, 양제 대업 3年(607) “봄 정월 丙子에 長星이 竟天하여, 東壁에 보였다가 二旬 후에 止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1985년 겨울에 나타난 헬리혜성도 처음에 관측된 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밝은 태양에 혜성이 다가갈 때 그것은 관측되지 않는다. 玄源福 篇, 『백만인의 헬리혜성』(과학세기사, 1986년 1월) 88 ~89쪽에 있는 헬리혜성 일문일답의 일부를 보자.

“문) 헬리혜성은 어째서 지구와 두 번 접근하는지요? 답) 헬리혜성은 태양에 접근할 때 지구의 궤도를 가로질러 혜성의 궤도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갈 때와 돌아올 때 합쳐서 두 번 지구와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은 1985년 11월 27일이었으며, 두 번째는 86년 4월 11일입니다.”

IV. 607년 前後의 危機

신라의 영토팽창은 진평왕의 조부였던 진흥왕대에 정력적으로 추진되어 560년대에는 그때까지의 신라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실지회복을 꿈꾸는 고구려·백제 양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어 고난에 찬 생존전쟁을 치러야 했다. 왜국이 신라의 남쪽 해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591년 겨울 11월 紀男麻呂宿禰·巨勢猿臣·大伴嚙連·葛城烏奈良臣으로 대장군을 삼고, 각 氏의 臣連으로 裨將과 部隊를 삼아 2만여 군사를 이끌고 쓰쿠시(筑紫)에 주둔하게 했다.³⁸⁾ 그리고 吉士 金을 신라에 보내 엄중한 경고를 한 것 같다. 紀男麻呂宿禰·巨勢猿

38) 『日本書紀』卷21, 崇峻天皇 4年(591) 11月 “冬十一月己卯朔壬午. 差紀男麻呂宿禰. 巨勢巨比良夫. 狹臣. 大伴嚙連. 葛城烏奈良臣. 爲大將軍率氏氏臣連爲裨將部隊. 領二萬餘軍. 出居筑紫. 遣吉士金於新羅. 遣吉士木蓮子於任那. 問任那事.”

臣·大伴嚙連·葛城烏奈良臣 등 대장군들은 595년 7월이 되어서야 쓰쿠시에서 조정으로 돌아왔다.³⁹⁾ 그들은 2만의 군대를 현재 큐슈의 후쿠오카에 주둔시켜 근 4년동안 신라를 위협했다.

600년 봄 2월 신라가 지배하던 가야(임나)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신라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섰다. 그러자 천황이 가야를 구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 境部臣을 대장군으로 삼고 穗積臣을 부장군으로 삼아, 1만 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공했다. 현해탄을 건너 가야지역의 해안가에 상륙한 왜군은 신라의 5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왕(진평왕)이 왜군의 장군들에게 多多羅·素奈羅·弗知鬼·委陀·南迦羅·阿羅羅 6城을 떼어 주겠다고 했다. 물론 그것은 진정성과 거리가 있는 제스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군에게 후퇴의 명분을 주겠다고는 것일 수도 있다. 왜군이 물러가자 신라는 곧바로 가야지역을 다시 공격했다.⁴⁰⁾

이듬해인 601년 겨울 11월에 왜국 조정에서 신라를 칠 것을 의논하고, 602년 봄 2월에 來目皇子를 신라를 치는 장군으로 삼고, 여러 神部와 國造·伴造 등 및 군사 2만 5천명을 동원했다. 4월에 신라침공 총사령관 來目皇子가 筑紫에 도착하여 鳴郡에 주둔하고, 선박을 모으고 군량을 날랐다.⁴¹⁾ 래목황자가 병에 걸려 신라에 대한 공격은 연기되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603년 4월 왜는 當摩皇子를 신라

39)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3年 “秋七月. 將軍等至自筑紫.”

40)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8年 “命境部臣爲大將軍. 以穗積臣爲副將軍並闕名. 則將萬餘衆. 爲任那擊新羅. 於是. 直指新羅. 於是直指新羅以泛海往之. 乃至于新羅攻五城而拔. 於是. 新羅王惶之. 舉白旗到于將軍之麾下. 而立割多多羅. 素奈羅. 弗知鬼. 委陀. 南加羅. 阿羅々六城以請服 … 將軍等至自新羅. 弭新羅亦侵任那.”

41)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 11月 “冬十一月庚辰朔甲申. 議政新羅.” 10年 2월 “來目皇子爲擊新羅將軍. 授諸神部及國造. 伴造等. 并軍衆二萬五千人.” 4月 “將軍來目皇子到于筑紫. 乃進屯鳴郡. 而聚船舶運軍糧.”

침공 사령관으로 임명했다.⁴²⁾ 물론 當摩皇子도 신라를 침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591년부터 603년까지 12년 동안 왜는 신라를 위협했다.

마침 602년부터 신라에 대한 고구려·백제의 양면공격이 본격화되었다. 602년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용맹한 전사 귀산과 추앙이 전사했고, 603년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해 오자 진평왕이 직접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를 막았다. 604년에는 이천에 주둔해 있던 신라 六停 군단의 하나인 남천정을 북한산 쪽으로 전진 배치했으며, 605년에는 신라가 백제를 쳤다.

607년 2월을 전후하여 100일 동안 하늘에 혜성이 떴었다. 앞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한 불안감이 신라인들의 머리를 짓눌렀을 것이다. 왕은 백성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천체의 이변에 대한 왕이 스스로 의식을 주관해야 했다. 진평왕이 자리한 가운데 혜성 소멸을 위한 의식이 행해졌다.⁴³⁾ 읍천사가 지은 「혜성가」가 왕경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 해 7월 마침 수양제가 북방의 초원을 순행하던 중 돌궐 계민가한의 牙帳에서 고구려 사신을 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고구려와 수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608년에 진평왕이 고구려가 신라의 강역을 자주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2) 『日本書紀』卷22, 推古天皇 11年(603) 2月 “來目皇子薨於筑紫. 仍驛使以奏上. 爰天皇聞之大驚. 則召皇太子. 蘇我大臣. 謂之曰. 征新羅大將軍來目皇子薨之. 其臨大事而不遂矣. 甚悲乎. 仍殯于周芳娑婆. 乃遣土師連猪手命掌殯事. 故猪手連之孫曰娑婆連. 其是之緣也. 後葬於河內埴生山岡上. 夏四月壬申朔. 更以來目皇子之兄當麻皇子爲征新羅將軍. 七月辛丑朔癸卯. 當麻皇子自難波發船.”

43) 岡山善一郎, 앞의 논문, pp. 101~103.

수와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고구려는 배후의 신라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608년 2월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쪽 변방을 공격하여 8천 명을 사로잡았으며, 4월에는 우명산성을 함락시켰다.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이 확실해진 611년에 신라는 또 다시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표를 올리니 수양제가 이를 허락했다. 이는 수가 요동 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할 때 신라가 여기에 호응하여 고구려의 남쪽국경을 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백제가 신라의 발목을 잡았다. 그 해 백제는 신라의 가잠성을 공격하여 100일 동안 포위했으며, 10월에 가서는 이를 함락시킨 것 같다. 신라의 현령 찬득은 槐나무에 머리를 받고 자살했다. 신라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다.⁴⁴⁾

한편 611년 2월에 수양제가 고구려 토벌의 조서를 내렸고, 4월에 수나라의 100만 정벌군과 물자가 지금의 북경에 집결하고 있었다.⁴⁵⁾ 신라는 요동에 집중된 고구려 병력을 남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수와 공조작전을 펼치려 했지만 쉽게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고구려로서는 국운을 건 일대 결전을 눈앞에 둔 시기에 남쪽에서 신라가 침공해온다면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 반드시 신라군을 남쪽에 묶어둬야 했고 여기서 백제가 한 몫을 했다. 물론 그 와중에 왜의 존재가 신라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이듬해인 612년 6월, 수나라는 고구려 요동성을 수 차례 공격했지만 함락되지 않았으며, 그 직후 압록강을 건너간 수나라군 30만이 전멸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607년의 헬리혜성이 불운을 예고한 듯이 그 후 신라는 지속적으로 외침에 시달렸고, 마침내 동맹국인

44)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4년~33년조.

45) 『자치통감』 권181, 대업 7년 4월조.

수의 대군도 고구려에 대패했다. 수의 패배는 신라의 앞날에 어둠을 드리웠다.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수군이 전멸한 사건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변수였다. 수의 무능이 폭로되고 고구려의 막강함이 드러났다. 고구려가 수군을 전멸시킨 사건은 당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음이 틀림없다.

612년 수양제의 1차 고구려 침공이 재앙으로 끝나자, 복수심에 사로잡힌 수양제는 613년에 바로 2차 고구려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때 후방에서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나 2차 침공은 무산되었다. 禮部尙書 양현감이 ‘천하를 위해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그만두고 어진 백성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고구려 침공에 반대하여 쫓겨났던 것이다.⁴⁶⁾

고구려·백제·왜 삼국이 신라를 포위 공격하는 상황에서 믿었던 동맹국 수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앞으로 수가 고구려를 견제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613년 가을 7월에 수나라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이르자 ‘百高座會’를 열었다.⁴⁷⁾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동맹국 수는 내란으로 급격히 붕괴되고 있었고 신라에 대한 백제와 고구려의 침공도 계속되었다. 신라가 고구려·왜·백제 3국에 포위된 상황에서 출현한 607년의 대혜성은 신라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게 확실하며, 「彗星歌」는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되었다.

V. 맺음 말

595년 고구려 영양왕은 승려 혜자를 파견했다. 혜자는 595년부터

46) 『자치통감』 권182, 수기6 양제 대업 9년 4월·6월조.

47)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613)년조.

615년까지 20년간 왜에 체재하면서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있었다. 4차례에 걸친 수의 고구려 침략, 혜자의 일본 방문과 고구려 환국 모두 영양왕시대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 영양왕은 왜에 자주 사신을 파견했으며, 적극적으로 승려와 기술자를 보내는 등 경제적·문화적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실로 왜에 대한 고구려의 원조는 대단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외교는 효과를 발휘했다. 왜는 591년부터 2만 5천명의 군대를 九州 筑紫에 파견했다. 이후 근 4년 동안 왜군은 그곳에 주둔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수의 침공에 대비하여 전부터 사이가 나쁜 신라군을 남쪽에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왜가 대규모 병력을 구주에 배치하면 신라는 군대를 고구려 국경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600년에 왜군이 신라를 공격했다. 이듬해 왜에서는 다시 신라를 공격하는 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602년에는 신라정토계획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실행해 옮기지 못하고 다음해에 그것은 다시 시도된다. 이것도 중단된다. 하지만 591년부터 603년까지 근 12년간 왜국은 신라를 위협했다.

이때 607년에 100일 동안 지구에서 관측된 헬리혜성이 주목된다. 「彗星歌」에서 보이는 ‘일본병 환국’과 ‘혜성이 心大星을 범한’ 2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607년의 헬리혜성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만큼 규모가 컸고 10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늘에 떠있었으며, 신라에서 왜에 대한 긴장이 존재하는 시기에 출현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방에서 처음 출현했다는 점에서도 ‘犯心大星’과 대체로 일치한다.

「彗星歌」 첫 머리에 나오는 ‘舊理’가 이전의 시제를 의미한다고 하는 최근의 연구성과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전(600년)에 왜군이 신라에 쳐들어 왔던 적이 있었는데 (607년)에 혜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혜성의 출현을 왜군의 재침의 전조로 여겼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음천사가 혜성가를 지어 불러 혜성을 사라지게 하니 왜군의 침범의 우려도 사라졌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의 양면 공격은 진평왕 24년(602)부터 본격화되었다. 602년 백제가 아막성을 공격했고, 603년 가을 8월에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쳤다. 605년에는 신라가 백제를 쳤으며, 608년에는 진평왕이 고구려가 신라의 강역을 자주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보냈다. 그 해 2월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쪽 변방을 침략해 신라인 8천 명을 사로잡아 갔으며, 4월에는 우명산성을 빼앗았다. 611년에 신라는 또 다시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표를 올리고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쳤다. 그 해 수나라의 100만 정벌군이 북경에 집결해 있었다.

신라는 요동에 집중된 고구려의 병력을 남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수와 공조작전을 한 것이다. 고구려가 국운을 건 수와의 일대 결전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남쪽에서 발생한 신라의 침공은 여간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고구려로서는 신라군을 남쪽에 묶어 두어야 했고, 이를 위해 왜는 고구려에게 절실한 존재였다.

612년 6월 수나라는 고구려 요동성을 수 차례 공격했음에도 함락시키지 못했으며, 그 직후 압록강을 건너간 수나라군 30만이 전멸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고구려·백제·왜 삼국의 포위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최대 동맹국 수의 군대가 청천강에서 전멸했던 것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믿었던 수군이 고구려에 대패한 사건은 신라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돌출 변수였다. 물론 이 사건은 전세계를 놀라게 했음이 분명하다. 최강의 무력국가인 수가 고구려에 패했다는 사실은 신라인들에게 절망을 뜻했다.

613년 가을 7월에 수나라의 사신이 황룡사에 도착한 가운데 百高座會가 열렸다. 신라 진평왕이 백좌법회를 열기로 한 것은 현실에

대한 비애와 더불어 어찌면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백좌법회란 많은 승려를 모아놓고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불경을 읽는 법회이다. 백고좌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왕경에 퍼졌고, 곧 전국의 고승들이 왕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굳게 믿었던 동맹국 수는 내란으로 급격히 붕괴되어갔고 신라에 대한 백제와 고구려의 침공도 계속되었다.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지속적인 양면공격을 받고 있었고, 배후의 왜의 위협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607년에 출현한 대혜성은 신라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 확실하며, 「彗星歌」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산물이다.